

# 코로나19 직격탄 업종 집중 지원

##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수도요금 감면·제한업종 등에 직접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2차 집합금지 제한업종 지원에 이어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원카드를 꺼내 든 것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와 관광업계 등 위기업종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원책인 수도요금과 전액 감면해 주고, 설 명절을 앞두고 관광업체와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과 카페, 방역에 협조해 피해를 입은 상점, 기업 등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간 촘촘히 쌓아온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모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곳들과 위기업종 분야를 찾아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 위기업종·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 등 4만566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된 전주형 재난지원금처럼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석원 교수)이 지난해 전주형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족한 수입을 보충해줬고, 꼭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7.8%를 차지했다. 또,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60%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인 슈퍼마켓

과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문을 닫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고위험 제한시설 1,508곳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100만원씩의 전주형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집합금지 제한업종 지원에 이은 이번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과 코로나19 피해업종 등에 대한 직접지원 등 2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간접지원 방식의 경우 일반 가정용과 관광사를 제외한 모든 상수도 요금이 오는 3월 부과분(2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전액 감면된다. 세 부적으로 식당과 카페, 대중탕, 기업 등 4만9,000여 건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총 115억원, 업체당 평균 23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요금 전액 감면과 더불어 ▲코로나19 제한업종(9개 업종) 3,700개소 ▲확진자방문 공개 업소 40개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19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28명 ▲문화예술인 1,416명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직접 지원된다.

먼저 전주시에 자체 영업제한 명령을 내린 업종 중 정부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일반업소 수준만 지원받은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3,673곳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을 제외하고 업체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또, 코로나19로 여행 등이 취소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주지역 전세버스 업체에는 100만원,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각각 지원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100만원씩 지원받은 개인 택시시기와 비교해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만 지원 받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28명도 차액인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연 등 예술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도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을 제외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할 경우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공개된 40개 업소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실상 소득이 끊긴 전주지역 350개 관광업체도 각각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 확진자 방문업소 58곳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는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당장 소상공인들이 고정적으로 부담해야했던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 지원되는 직접지원금의 경우 감소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소상공인과 예술인, 운수종사자들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요금 감면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추가지원이 전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모두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겨운 사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생계가 곤란한 업종을 우선 지원하고 우리 모두가 강력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고통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8일 모래내시장과 신중양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의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여성단체, 어린이집연합회 등 21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선언식을 했다.

#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적극 동참

## 지역 여성·사회복지단체·어린이집연합회, 동참 선언식 가져

전주 지역 여성·사회복지단체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는 8일 모래내시장과 신중양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의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여성단체, 어린이집연합회 등 21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선언식을 했다.

이날 선언식을 통해 여성·사회복지단체와 어린이집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 회원들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언식에 이어 단체는 모래내시장과 신중양시장에서 돼지카드(전주시사랑상품권)를 활용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했다.

참여 후에는 전주시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good.jonju.go.kr)에 인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시작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은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 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돼지카드 혜택이 한시적으로 20%까지 늘어난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 집계 결과 8일 오전 9시 기준 5,22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민간단체와 동별 자생단체에 이어 복지단체까지 참여함에 따라 이 캠페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선 지급된 자금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워줄 구명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여성·

사회복지단체와 어린이집연합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바람 끌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 ▲전주시사회복지관연합회 ▲전주시재가노인복지협회 ▲전주시효자시니어클럽 ▲전주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전주시자연사랑회 ▲한국자유총연맹전주시부여성회 ▲전주시농업인연합회 ▲한국결스카우트전주시부 ▲전주시주부환경감시단 ▲전주시생물개성회 ▲전주시새마을부녀회 ▲전주여성인력센터 ▲사회복지법인분과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연합회 ▲가정어린이집분과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연합회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분과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

#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 전주시보건소, 343개소 당직 의료기관·휴일지킴이 약국 지정·운영

전주시가 설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설 연휴기간에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및 약국 등 총 343개소를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내시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안내한다.

보건소 홈페이지(health.jonju.go.kr)를 통해서도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제공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24시간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설 연휴기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지도 위에 주변 병원과 약국을 표시해주는 이 앱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조건에 따라 휴일 및 야간에 문을 여는 응급실·병원 등 원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과 이용 가능 병상수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해 응급환자들의 보다 신속한 대처를 돕는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설 연휴와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해 시민들의 효과적인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로 검색한 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온라인 평생학습대학 수강생 모집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평생학습대학'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온라인 평생학습대학은 문화예술·인문교양·직업능력·생활문화 등 4개 분야 2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각 프로그램들은 오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8주간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튜브 운영, 컴퓨터, 정리수납 등 실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직업능력교육 ▲악기, 캘리그래피 등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용적인 외국어 학습, 시 낭독 등 인문교양교육 ▲실생활에 적용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포함한 생활문제교육 등으로 꾸려졌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